

2024. 6. 1.(토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서울대공원 조경과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매수 : 3매

관리부장

이상국

02-500-7001

조경과장

구동근

02-500-7500

홈페이지

<http://grandpark.seoul.go.kr>

서울대공원, 식물원으로 가는 길, 피톤치드 사워하세요!

- 고지대에 있는 식물원 가는 길 곳곳에 선형 정원 조성해 발걸음마다 꽃길
- 공원 내 산림치유센터에서 사용한 편백볼을 멀칭재로 재활용하여 정원 구성
- 식물 주변 자갈과 바위 등을 이용한 건천 계류와 조형 암석원도 신비한 볼거리
- 정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꽃명존 휴게 쉼터도 조성되어 여유 만끽

☐ 서울대공원은 식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과 휴식을 제공하고자 식물원으로 가는 길, 피톤치드 정원을 조성하였다.

- 서울대공원 식물원은 동물원 내 고지대에 위치하고, 가는 길에 오르막도 있어 도착하기 전에 지치는 관람객이 많다.
- 피톤치드 정원은 식물원으로 가는 길을 따라 조성된 선형의 정원으로 블루아이스 등 7,820주 수목과 러시안세이지 등 16,800본의 숙근초화류가 심어져 있다.

☐ 피톤치드 정원에는 진한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진 블루아이스, 블루애로우, 스노우화백 등 상록침엽수 400여 주가 길을 따라 심어

저 마치 피톤치드 샤워를 하는 느낌이다.

- 나무에서 나오는 향기인 피톤치드는 잎이 넓은 활엽수보다는 잎이 바늘처럼 생긴 침엽수가 더 많이 내뿜는다.
- 블루아이스, 스노우화백, 블루애로우 등 정원에 심어져 있는 상록침엽수는 공기정화 및 피톤치드 배출을 하는 식물이다.

□ 피톤치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대공원 산림치유센터에서 치유프로그램으로 사용한 편백볼도 멀칭(mulching)재로 재활용하였다.

- 서울대공원 산림치유센터에서는 편백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혈액순환, 피로회복,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있다.
- 재활용으로 사용하는 편백볼에도 편백 향이 강하게 남아있어 정원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.

□ 또한, 호박돌과 자갈로 이루어진 건천 계류를 시작으로 조형암석원이 곳곳에 배치되어 식물과 돌이 어우러진 미술작품 같은 정원을 보여준다.

- 피톤치드 정원 내 바위는 대부분 이끼 낀 바위로 피톤치드 정원의 건강하고 청정한 환경을 나타낸다.
- 암석원 곳곳에 보라색 알리움이 피어나 녹색과 대비된 공간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.

□ 피톤치드 정원의 끝자락에는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쉴 수 있는 ‘꽃명존 휴게쉼터’가 조성되어 여유롭게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.

- 데크로 조성된 꽃명존 휴게쉼터에서는 테이블이나 돛자리를 펴고 앉아 피톤치드 정원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.
- 꽃명존 휴게쉼터 가장자리에는 아름다운 계절초화가 심어져 녹색의

수목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.

- 서울대공원 최홍연 원장은 “건강과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보다 많은 시민들이 피톤치드 정원을 찾아와 삶의 활력을 찾고 더불어 아름다운 식물원도 방문하시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[붙임] 피톤치드 정원 사진

[붙임] 피톤치드 정원 사진



하늘에서 본 피톤치드 정원



피톤치드 내뿜는 다양한 식물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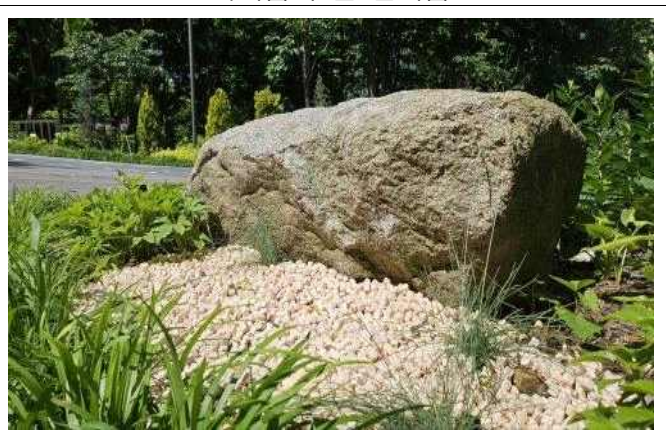
식물과 어우러진 조형암석원



바위틈에 핀 알리움



꽃멍존 쉼터



멀칭재로 재사용된 편백볼